

임화의 참고문헌: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 규명을 위한 管見

장문석*

1. 문제 제기 — 1930년대 학술사와 임화

1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¹⁾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의 시좌(視座)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① 임화 비평 초기에서부터 나타나는 맑스주의 문예미학과 과학적 비평, ② 「조선신문학사론 서설」(1935)을 즈음하여 보이는 ‘문학사’적 관심에 대한 표명, ③ 1930년대 중반 나타나기 시작하여 「본격소설론」(1938) 이후 더욱 심화된 조선적 특수성에 대한 관심, ④ 일본근대문학과 한국근대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시각, ⑤ 마산 요양 이후 그의 비평에서 산견되는 서구 근대문학 정전에 대한 시각 및 서구문학의 조선에의 이입에 대한 감각, ⑥ ‘학예사’를 중심으로 한 경성제대 출신 조선 학자들과의 교류와 조선 문학의 전통에 대한 재평가 등. 「개설 신문학사」는 이 같은 임화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관심들이 합류하여 이루어진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겹치며 때로는 갈라지는 복잡다단한 여러 맥락들 속에서 「개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여기서의 「개설 신문학사」란 임규찬 교수의 용례를 따라, 임화가 1939~41년에 걸쳐, 『조선일보』, 『인문평론』에 연재한 「개설 신문학사」, 「신문학사」, 「속 신문학사」, 「개설 조선신문학사」를 통칭하는 것이다.

신문학사」의 진면목에 도달하는 것은 금후의 과제로 돌리고, 이 글은 우선 ⑥과 관련된 어름을 다루고자 한다. 학예사를 매개로 임화는 김태준, 이재욱, 방중현 등 경성제대 조선어급조선문학 전공 출신 학인들과 교류를 했으며, 그 흔적은 「개설 신문학사」 곳곳에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들과의 교류가 자료의 수득과 조선문학의 전통에 관한 재발견이라는 임화 인식의 확장을 가져온 것을 넘어서, 문학사를 쓰는 임화의 ‘글쓰기’ 자체를 기존과는 다른 어떤 성격으로 변화시킨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혹은, 임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문학사’라는 글쓰기를 이전의 자신이 해왔던 글쓰기와 다른 성격의 글쓰기로 상정한 것은 아닌가 가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그가 교류했던 학인들이 가지고 있던 아카데미즘에 기반한 근대적 학문방법론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에 나타난 글쓰기의 한 성격을 ‘학술적 글쓰기’로 명명하고, 그것을 전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개설 신문학사」를 당대에 이미 구축되어 있었던 식민지 조선의 학술(學術)²⁾ 장(場)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보려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학술적 글쓰기’라는 문제들을 통해서 「개설 신문학사」를 온전히 혹은, ‘손쉽게’ 해명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개설 신문학사」를 포함하여 임화 글쓰기의 다채로운 편폭 중의 한 단면이며, 다른 성격의 글쓰기들과 때로는 어울리며 때로는 충돌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①, ②, 때로는 ③의 시각에서 풍부하게 이루어졌으며, 그러다

2) 한기형 교수는 식민지 조선의 (주로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의 학술장을 ‘관학대’ ‘민간학’의 구도로 설명하는 것을 시도한 바 있다(한기형, 「근대매체와 식민지 민간학술사회의 형성 - 근대문학의 지식사적 위상에 대한 시론」, 『해방 이후, 한국문학 생산의 조건, 그 제도와 매체: 2009년 제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故 방기중 교수의 선구적인 작업 이래로, 일반적으로 1930년대 중반 조선학 논쟁의 주체를 ‘관방 측 학자’, ‘탐스주의자’, ‘조선 민족주의자’로 나누는데, ‘이념’에 의한 이 구분 역시 엄밀한 구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여기서의 각 주체는 그 성격에 따라 다시금 분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글에서 살필 임화가 섭렵한 선행연구들은 그 대부분이 근대적 출판체계 속에서 유통되는 것들이었지만 다양한 성격과 위상을 포괄하고 있었다. 적절한 용어가 아닐 수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포괄성을 고려하여 ‘학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보니 ‘학술적 글쓰기’라는 측면에서 「개설 신문학사」의 성격을 조명하는 것은 간과했다고 사료된다. 이 글은 ‘학술적 글쓰기’라는 지점에 주목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로부터 출발하여 「개설 신문학사」에 접근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해석에 도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미처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으나, ‘학술적 글쓰기’라는 경로를 경유하여, 다시금 ①~⑥까지의 다양한 면모를 아우르는 연구를 추후에 진행하고자 한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미진한 출발점으로서 작성된다.

[2]

『인문평론』의 2호 〈교양〉 특집은 각 논자들이 상이하게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도 흥미롭거니와, 동시에 각 논자들의 문체의 차이 역시 두드러진다. 최재서는 나름 순차적인 논지전개에 자신의 서구적인 교양을 드러내는 수사를 사용하고, 박치우의 글에서 철학적인 개념어들이 두드러진다면, 이원조는 한적(漢籍)을 인용해 글을 쓰고 있다. 이에 비해, 임화는 어떤 문단은 한 문장으로 구성하기도 하여 문단 길이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고, 하나의 논리로 글 전체를 관통하기 보다는 곳곳에서 지금까지의 맥락과 다소 거리가 있는 논의가 투입하여 다소 복잡한, 그러나 역동적인 전개를 보여준다.³⁾ 물론 글쓰기의 개인적인 스타일인 문체 자체를 각 논자들이 경험한 교육-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해 파악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화의 글쓰기가 다른 이들보다 자유분방한 것은 사실이다. “中學校를 卒業即前에 離別”하고도 “學業의 廢止를 조금도 슬피도 섭섭히도 생각지 않았”던⁴⁾ ‘부랑청년’ 임화였다. 1939년 말, 비평의 영역에서 임화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그 자신의 문체를 여전히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평이 아닌, 「개설 신문학사」라는 ‘문학사’라는 영역에서는, 자못

3) 대표적으로 「교양과 조선문단」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이식문화로서의 경향문학에 대한 논의일 것이다. 또한 적어도 문체의 면에 있어서는, 김남천과 임화의 거리보다는 최재서와 김남천의 거리가 더 가까워보인다.

4) 임화, 「어떤 청년의 참회」, 『문장』, 1940. 2, 22면.

사정이 달라진다. 보통 ‘문학사(文學史)’, 곧 근대 분과학문의 통사를 쓰는 작업은 그 학문의 제도화와 관련된 아카데미즘의 핵심적인 사안이다. 물론 임화는 1935년에 이미 「조선신문학사론 서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글의 서두에서 임화는 애초에는 “신경향과문학의 역사에 대한 전혀 부당한 수삼의 논문을 비판의 대상으로 하는 국한된 목적으로 기초”되었지만 “의외의 방면으로 벌어지고 길어져서 전혀 발표의 사정에 의하여 불손한 제목을 붙”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덧붙여 “이곳에서 ‘사론(史論)’에 상응하는 풍부한 내용을 기다린다면 적지 않은 실망을 가질 것을 미리 말해두”기도 한다.⁵⁾ ‘사론’이라는 말이 ‘불손한 제목’, ‘실망’이라는 말과 함께 쓰인 것에서 보듯, 임화는 1930년대 초반에 이미 아카데미즘이라는 맥락 안으로 상당 부분 편입된 ‘문학사’라는 글쓰기 작업을⁶⁾ 자신이 시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질감’을 토로하고 있다. 물론 임화는 1934년 무렵부터 ‘맑스주의 예술과학’, ‘과학으로서의 독립적인 학문’을 말하며 “역사적인 것만이 논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만이 역사적이며,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동시에 논리적인 양자를 통일적으로 자기 가운데 체현하고 있는 것만이, 비로소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언명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⁷⁾ 그러나 그렇게 언명을 하는 것과 실제 문학사를 쓰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후 문학사에 대한 임화의 시도는 1930년대 말까지 이어진다. 1938년

5) 임화, 「조선신문학사론 서설」(1935), 임규찬 편, 『입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 2009, 373면(이하 이 책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학사』라고 약칭하고 면수만 표시한다).

6) 물론 안확이나 이능화, 혹은 신채호, 최남선 등 아카데미와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다양한 논자들이 이미 1920년대부터 조선사/문학사와 관련된 저술들을 남긴 사실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연건 교수 백남운은 사회경제사 서술을 시도하고, 경성제대라는 아카데미의 성립 이후 경성제대 조선어급조선문학 전공의 조선인 학생들은 각 갈래 문학의 통사적 작업에 매진한다. 193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발표된 김태준, 김재철, 조윤제 등의 작업을 통해, 조선문학에 대한 통사 기술은 이미 아카데미즘의 영역으로 상당 부분 들어간다.

7) 임화, 「집단과 개성의 문제 - 다시 형상의 성질에 관하여」, 『조선중앙일보』, 1934. 3. 13~20; 임규찬, 「입화 문학사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입화문학연구회 편, 『입화 문학 연구』, 소명, 2009, 128면.

초두, 그는 38년에 1권, 39년에 또 1권의 문학사 집필 계획을 밝히기도 한다.⁸⁾ 그리고 1938년 말 그는 학예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며, 경성제대 출신 조선학자들과 교류하며 <조선문고>를 간행한다.⁹⁾ 그 와중에 그는 김태준의 『증보 조선소설사』에서 편집자로서 머리말을 쓰며, “나 역시 이러한 領域에서 學問的 希望을 이뤄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한다.¹⁰⁾ 그리고 집필한 것이 「개설 신문학사」이다.

문제는 「개설 신문학사」에서 보여주는 임화의 글쓰기가 논쟁성 강한 그의 비평적 글쓰기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연재를 시작하는 첫날, 임화는 연재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小序)”의 부제를 “본 논문의 한계”로 정했다.¹¹⁾ 그리고 ‘소서’의 마지막을 “이 가운뎃 훗날 면밀한 연구자가 보아 가소로운 실패와 분반할 결함이 스스로 포함될 것이요, 일이 립(粒)외의 모두가 와륵(瓦礫)일지도 모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영역에 있어서 전연 그 아마투어인 필자가 대담한 기도를 시험”한다고 쓰고 있다.¹²⁾ ‘가소로운 실패’, ‘아마투어’와 ‘한계’라는 말을 통해 임화는 이 문학사 서술이 자신의 다른 비평이나 산문 작업과 다른 의미의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 중에 내비치고 있다.

③

그렇다면 무엇이 임화에게 신문학사 서술이 기존 그의 비평과 다른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을까.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1930년대 이미

8) 임화, 「나의 십년계획」, 『조광』 1938. 1. 읽기에 따라서 38년과 39년에 각각 1권씩 낸다고 볼 수도 있고, 둘이 같은 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三八年 詩集을 또한卷 出版할 것 / 文學史에關한冊을 帙한卷 完成할 것 / 散文에 試驗을해볼 것 / 딸을 學校에넣을 것 生活方針은 未詳. / 三九年 文學史에關한冊을 한卷 歷史에關한것等한冊, 旅行 / 以下未定, 但五年以內에 되도록 健康을 回復할 것.”

9) 방민호, 「임화와 학예사」,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263-306면.

10) 임화, 「序를 대신하여」, 김태준, 『증보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3면.

11) 임화, 「개설 신문학사(1)」, 『조선일보』 1939. 9. 2; 『문학사』, 11면.

12) 임화, 「개설 신문학사(2)」, 『조선일보』 1939. 9. 3; 『문학사』, 11면.

여러 미디어를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던 아카데미즘을 표방한 조선학자들의 통사 작업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임화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영역과 다른 ‘영역’임을 강조하면서 문학사 서술에 조심을 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임화와 직접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승녕의 다음과 같은 회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조선어문학회」를 ㉠동문끼리 조직하고서 주머니 돈을 털어 회보를 내었다. 국문학으로 조운제, 서두수, 김태준, 김재철, 이재육선배가 맡고 국어학은 이희승씨, 방중현군과 내가 맡은 것이다. 논문을 쓰고 출판도 하고 서로 비판도 했다. 당시로는 우리가 「새 세대」라 우리가 아니면 어문학이 부흥할 수 없는 것으로 자처했다. 잡지에 나오는 기성학자의 논문을 보고 비판할 때의 기백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때 A씨의 글이 그게 논문이란 말야. 케케묵은 소리도 분수가 있지. ㉡考證이나 參考文獻이 되어 먹지 않았거든』

『우리가 나서서 깨끗이 소제를 해야될 것이야.』

이러한 폭언에 가까운 과격한 언사를 거침없이 공언한 터이다.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 보람있는 일을 한 것은 사실이어서 ㉢「조선소설사」 「조선한문학사」가 김태준의 학생시대의 자료개척에서 엮여지고 출판된 것이고, 「악장가사」도 또한 그렇다. 「조선연극사」는 김재철씨의 학생작품이다. 「시가의 연구」도 조운제씨의 독자적 개척으로 보인다. 이재육씨의 「재기승연구」 등 모두 당시로서는 이니시아티브를 가진 발표며 으시멜 만한 개척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육당의 「불함문화론」이라도 이 문화의 특공대(?) 앞에는 남아날 리가 없었다.¹³⁾

임화와 같은 1908년 생으로 당시 대학 학부생의 신분이던 이승녕의 회고가 보여주는 자부심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지는가. 조선 신문화의 선구자 육당 최남선마저 우습게 보는 그(를 비롯한 경성제대 출신 학인들)의 학문적 자부심은, 문학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물(㉣)의 위상과 성과에서 실제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 학문적 방법론으로 지목된 것이 고증과 참고문헌 등 실증주의이다(㉤). 여기에 경성제대 동문이라는 아카데미즘적인 권력

13) 이승녕, 『대학가의 파수병』, 민중서림, 1969, 25-26면. 경성제대의 조선인 학생들에 관해서는 李秉根, 「李崇寧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학문」, 서울대 국어연구회 편, 『李崇寧 現代國語學的 開拓者』, 대학사, 2008, 27-38면 및 김윤식, 『한국 근대문학사상사(1)』, 일지사, 1984 참조.

또한 개입해서(㉔), “아카데미즘(학문의 전당으로서의 대학 + 동문의식) - 실증주의(과학성) - 문학사라는 가시적인 업적”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진다. 1930년대 중반 이후로, 문학사라는 글쓰기 영역에는 이처럼 아카데미즘과 ‘학술성’이라는 성격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¹⁴⁾

문학사를 쓰는 입화의 경우는 어땠는가? 위에서 이승녕 등이 일갈했던 것과 같이, 그 역시 이전 그의 글쓰기와는 달리, 자료와 참고문헌의 문제에 민감했다. 입화는 문학사의 자료를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한다. 이후 1941년 『인문평론』의 폐간과 더불어 문학사 연재가 중단된 마지막 시점까지, 입화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연락을 주면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소장자가 원하는 책과 교환해주겠다고 하면서 “곤난의 극복을 위하여 불가불 독자여러분의 두터운 원조를 갈망”하면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엇더한 방법임을 불구하고” 사려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힌다.¹⁵⁾ 그리고 이 글에서 주목할 입화의 ‘각주’도 「개설 신문학사」를 특징 짓는 한 요소이며, 입화는 어떤 자료를 얻었을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¹⁶⁾

이처럼 입화의 문학사 서술에도 ‘고증’과 ‘참고문헌’이라는 근대적 학문방

14) 윌러스틴은 우리가 전문가 공동체를 신뢰하게 되는 두 가지 가정을 소개한다. “즉 그들은 믿을 만한 기관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합리적으로 공평무사하다는 가정이다” 그것이다. 이 중 전자는, 공식적인 기관이 주는 신뢰성이 그들의 학문의 성과를 보증한다는 뜻이며, 후자의 것은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현명하게 읽음으로써 드러나는 어떤 진실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부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는 것이다”(이매뉴엘 윌러스틴, 유희석 역,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 16-17면). 이 언급을 통해, 이승녕의 언급을 보라. ‘경성체대’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들 학인들 자부심의 근거가 되고, 또 그들이 하는 ‘과학’이 그들 작업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준다.

15) 입화, 「新文學史 資料」, 『인문평론』, 1941. 4, 42면.

16) 입화는 당시 생존해있던 신소설작가 최찬식과 유자후로부터 자료를 얻었으며, 이를 적기하고 있다. “차항은 유자후(柳子厚)씨의 후의를 입음이 불소(不少)하다. 특히 박영효의 『사회일지(史話日誌)』(sic-임규찬은 『사회기략(史話記略)』으로 교주 발체를 배차(拜借)했음은 감사한 일이다”(「개설 신문학사(23)」, 『조선일보』, 1939. 10. 24; 『문학사』, 74면); “당시의 저명한 신소설 작가로 현재의 유일한 생존자인 해동초인(海東樵人) 최찬식(崔瓚植) 씨(유명한 『추월색』의 작가)의 술회(述懷)를 들어도 [...]”(「속 신문학사(1)」, 『조선일보』, 1940. 2. 2; 『문학사』, 166면)

법론이 이미 개입하고 있었다.¹⁷⁾ 게다가 이승녕에게 자랑스러운 선배였던 김태준, 이재옥, 방중현은 학예사를 통해서 1930년대 말 임화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고 있었다.¹⁸⁾ 즉, 한 때 ‘부랑청년’이었으며 또한 정형화되지 않는 자유분방한 글쓰기를 보여주던 임화 역시 ‘문학사’라는 특정하게 성격화된 글을 쓰면서는, 아카데미즘이라는 제도를 무시하지는 못했으며, 오히려 경성제대 네트워크와 ‘나름의’ 관련을 맺으며 기존의 자기 글쓰기와는 이어 지면서도 단절된, 새로운 형태의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박진영이 적신히 지적한 바와 같이 “‘학(學)’으로서의 문학사”¹⁹⁾는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에 접근하는 주요한 시좌이다.

2. 참고문헌을 통해서 본 「개설 신문학사」

물론 현재 남아 있는 임화의 문학사는 “미완이라 칭하기에도 과할 만큼 본래의 의도에 비해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²⁰⁾ 임화 또한 연재본 곳곳에서 다시 이 연재물을 책으로 만들어 “본편이 성권할 제”를 기약하고 있다.²¹⁾

17) 김명호 교수는 국문학 연구방법론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국문학연구에 있어 ① 문학연구의 기초로서 실증적 성과의 축적, ②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 ③ 문학연구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자각, 이 세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김명호, 「국문학연구 방법」,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40-41면). 이 세 측면이, (아카데미즘에 기반한) 국문학 연구의 자기 정체성과 지향을 말해준다고 할 때, 그 세 측면이 이 시기 임화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문학사’를 쓰는 그의 글쓰기가 근대적 학문방법론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닿았음을 징후적으로 드러낸다.

18) 조금 더 시야를 넓힌다면, 학예사에서 『일리아드』의 번역본을 출간하는 임학수, 『인문평론』의 최재서, 박치우, 혹은 그 주변의 배호 등 경성제대 출신 인사들. 혹은 일본 유학을 마친 서인석 등까지도 임화의 주변에 있었다(『인문평론』과 제도로서의 영문학에 관해서는 三原芳秋, 「崔載瑞の Order」, 『사이』 4, 2008, 291-306면 참조). 이러한 임화의 학인들과의 교류는 일제 말기 송석하, 이병기 등과 의 교류에까지 이어진다.

19) 박진영, 「임화 신문학사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2-6면.

20) 임규찬, 「임화 문학사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105면.

21) 임화, 「신문학사(4)」, 『조선일보』 1939. 12. 9; 『문학사』, 135면.

〈표 1〉 참고문헌으로 본 「개설 신문학사」

목차	면 수 (실제 면)	주석 수 (번호)	주요 참고 문헌
1939. 9. 2~11. 25. 「개설신문학사」(『조선일보』, 43회)			
소서본 논문의 한계	3(9~11)		
제1장 서론	11(12~22)		
1. 신문학의 어의와 내용성	5(12~16)	1(1)	김태준 『조선소설사』 * 『황성신문』, 「문학이란 何오」, 「현상소설 고선여언」
2. 우리 신문학사의 특수성	4(16~19)	1(2)	中央公論社 『世界文藝大辭典』
3. 일반 조선문학사와 신문학사	4(19~22)	1(3)	「조선문학의 개념」(『新生』)
제2장 신문학의 태반	110(22~131)		
제1절 물질적 배경	26(22~47)		
1. 자주적 근대화 조건의 결여	6(22~27)	3(4~6)	백남운, 이청원, 牟川二郎 『타이할트』
2. 조선의 개국 지연	2(27~28)	1(7)	輿平武彦, 『조선개국교섭전말』
3. 근대화의 제1과정	4(29~32)	8(8~15)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외교사』 상편, 제2장 「最初流入之西洋圖書」; 상편, 제9장 「西教發生及滋蔓」(재인용: 『지봉유설』, 『성호사설』, 『열하일기』, 『실록』 등 한문문헌)
4. 근대화의 제2과정	6(32~37)	20(16~35)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외교사』 부 조선외교사, 제14장 「조선영해에 표박양선」; 제17장 「병인양요」; 제24장 「신미양요」, (재인용: 『지봉유설』, 『문헌촬』, 『실록』) 이병도 역주, 『하멜 표류기』
5. 근대화의 제3과정	4(38~41)	12(36~47)	輿平武彦 『조선개국교섭전말』, 이선근 『조선최근세사』
6. 개국의 영향과 갑오개혁	6(42~47)	3(48~50)	四方博, 「조선 근대자본주의 성립과정」, 경성제대 편, 『조선 사회발달사 연구』
제2절 정신적 준비	85(47~131)		
1. 금압 하의 실험	7(47~53)	10(51~60)	백남운 『조선경제사』, 김태준 『조선소설사』, 조윤제 『조선시가지사강』, 新村出 『洋學』 高橋硬一 『洋學論』, 이능화

목차	면 수 (실제 면)	주석 수 (번호)	주요 참고 문헌
2. 지주의 정신과 개화사상	5(54~58)	1(61)	遠藤元男, 『일본문화사총설』
3.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	74(58~131)		
A. 신교육의 발흥과 그 공헌	17(58~74)	7(62~68)	高矯濱吉 『조선교육사고』, 弓削辛泰郎, 『朝鮮の教育』, H.N. Aleen, <i>Korea: Fect and Faney</i> , * 柳子厚
B.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	38(75~112)		** 각종 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등 ** 각종 잡지: 『서우』, 『야외』, 『소년한반도』, 『소년』(목차 길게 인용)
C. 성서번역과 언문운동	20(112~131)		? 선교사들의 출판활동(출처 불명확) * 김윤경, 『조선문자급어학사』(재인용: 이봉운 『국문정리』, 지석영 『언문』, 국문연구소 1,2회 보고서, 최광옥 『문전』) * 小倉進平 『조선어학사』, 최현배 『우리글의 바른 길』
cf. 序篇 終 ²²⁾			

〈휴재〉

1939. 12. 5~12. 27. 「신문학사」(『조선일보』, 11회)			
제3장 신문학의 태생	225 (132~346)		
제1절 과도기의 문학	8(132~139)		* 조윤제 『조선시가지사강』 7장
제2절 정치소설과 번역문학	18(139~156)		* 김태준 『조선소설사』 ** 박은식 『서사건국지』, 『월남망국사』, 안국선 『금수회의록』, 유원표 『몽전제갈량』, 矢野龍溪 『經國美談』, 유길준 『서유견문』, 신문관 간 십전총서
제3절 신시의 선구로서의 창가	9(156~164)		** 이증원 「동심가」 『독립신문』, 김교익 「신문가」 『독립신문』
cf. 「조선문학연구의 일과제」(『동아일보』, 1940. 1. 13~20) 연재			

〈휴재〉

1940. 2. 2~5. 10. 「속 신문학사」(『조선일보』, 48회)			
---	--	--	--

목차	면 수 (실제 면)	주석 수 (번호)	주요 참고 문헌
제4절 신소설의 출현과 유행	182 (165~346)		
1. 신소설의 의의와 가치	14(165~178)		* 김태준 『조선소설사』 ** 이해조 『화의혈』 서문과 발문
2. 작가와 작품의 연구	168 (179~346) ²³⁾		
A. 이인직과 그의 작품	94(181~274)		
B. 이해조와 그의 작품	18(274~291)		

(휴재)

1940. 11~1941. 4. 「개설 조선신문학사」(『인문평론』, 4회)			
B. 이해조와 그의 작품	55(292~346)		

그러나 사실 신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구도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분석은 이인직과 이해조에서 그친 현재의 「개설 신문학사」에서, ‘신문학’은 제대로 탄생하지도 못했고 미완인 분량만 해도 상당하다. 그간 적지 않은 신문학사에 대한 논고들이 존재했으나, 아직 그 면모가 밝혀지지 못한 것은 그 분량의 방대함에 기인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 글은 ‘각주’와 ‘참고문헌’의 문제에서 시작한다.

〈표 1〉은 ‘참고문헌’이라는 시각에서 「개설 신문학사」를 정리한 것이다. ① 목차는 「개설 조선신문학사」, 『인문평론』, 1940. 11, 226~227면에 실린 것을 바탕으로 삼아, 누락된 것은 임규찬 편, 『문학사』를 통해 보충하였다. 또한 연재날짜를 기입하였다. ② 면수의 경우, 신문학사가 신문과 잡지 모두에 연재되었기 때문에 비교의 편의를 위해 『문학사』의 면수를 기록했다. ③ 단, 주석의 수는 입화가 실제로 번호를 붙인 것만 계산을 했다. 그렇기 때

22) 임화, 「개설 신문학사(43)」, 『조선일보』 1939. 11. 25.

23) 「2 작가와 작품의 연구」의 경우, 「A 이인직과 그의 작품」이 시작되기 전에, 『문학사』 기준으로 3면에 해당하는 분량의 언급이 있다.

문에 자료로 이용된 신문기사의 경우는 거의 계수되지 않았고, 임화가 본문 서술 중에 서지를 밝혀서 각주를 달지 않은 것도 생략되어 있다. ④ 주요 참고문헌은 해당 부분의 각주들 중에서 빈번히 인용되거나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료나 선행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아무 표시 없는 것은 임화가 번호를 붙이고 각주로 인용한 것이다. *로 처리된 것은 각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임화가 본문 서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참고문헌이며, **로 처리된 것은 논의를 참고한 선행연구 서적이 아니라 서술에 이용한 ‘자료’ 중, 단지 서명만 언급된 것은 제외하고, 한 단락 이상의 내용이 인용된 것 중 논지 전개에 중요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로 처리한 것은 그 서술로 보아 임화가 어딘가에서 자료를 본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다.)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는 당대 이미 형성된 학술 장과의 긴밀한 연락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임화는 식민지 시기 형성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용, 재배치, 비판하면서 「개설 신문학사」를 쓰고 있다.

위의 표를 살폈을 때, 「개설 신문학사」에 관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임화가 신문학사 서술 초반에 무수한 각주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제2절 정신적 준비」의 「3.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의 「A. 신교육의 발흥과 그 공헌」 부분을 넘어서면서 각주는 사라진다. 이러한 사라짐은 단지 임화의 부주의일까? 사실, 이후의 서술에서 등장하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와 조운제의 『조선시가사강』, 김윤경의 『조선문자급어학사』, 이 세 권은 임화가 연재초기와 같은 방식으로 글을 썼다면 여러 번 각주를 달았어야 할 항목이긴 하다. 그러나 이 세 권을 제외한다면, 「B.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 이후에 임화가 논지를 참고한 문헌의 수 자체가 실제로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하는 것은 각주의 물리적인 양만이 아니다.

신문학사 연재 초기에는 임화가 주로 다른 이들의 연구서의 ‘논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 서술을 진행하고 각주를 남겼다면, 「B.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을 지나면서 선행연구의 논지 참조는 점차 줄어들고, 임화 자신의 목

소리가 전면화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인용은 주로 ‘자료’에 국한된다.

즉 「B.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을 변곡점으로 하며, 신문학사를 서술하는 입화의 ‘학술적 글쓰기’에는 모종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각주의 개수가 줄어들고, ② 참고문헌의 성격 또한 ‘논지’의 참조에서 ‘자료’의 이용으로 변화한다. 이 점에서 「개설 신문학사」는 그 전반부 글쓰기와 후반부 글쓰기 사이에 일정한 균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은 ③ 전반부의 글쓰기에 비해서 후반부의 글쓰기가 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해 볼 수 있다.

이 글은 「개설 신문학사」 글쓰기 자체가 내포한 균열을 확인하고 그것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이 글의 3장에서는 전반부 글쓰기의 한 예로서, 「제1절 물질적 배경」 하, 「3. 근대화의 제1과정」과 「4. 근대화의 제2과정」을 당대 학술 장과의 관련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후반부 글쓰기의 한 예로서, 「A. 이인직과 그의 작품」에 집중하여 입화의 논리를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반부, 후반부 두 글쓰기 성격의 문제를 분량과 연재라는 측면에서 살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시도를 통해, 「개설 신문학사」에서 입화가 보여준 ‘학술적 글쓰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3. 학술 장에의 개입과 선행연구의 재배치 — 조선의 근대화 과정과 전반부 글쓰기

1

신문학사의 앞부분, 특히 「제2장 신문학의 태반」에서 선행 논저의 인용이 두드러지는 것은, 이 부분에서 다루는 조선의 근대화 문제에 대해 1930년대 전반에 이미 많은 논저들이 논쟁적으로 학술 장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술 장에서 이루어진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간의 충돌은 입화로 하여금 스스로를 ‘이마튜어’로 느끼게 하였다. 1930년대 초반

백남운의 『朝鮮社會經濟史』(改造社, 1933) 출간을 계기로 아세아적 생산양식과 조선의 근대화에 대한 논쟁이 대두되었고, 적지 않은 당대 맑스주의 계열의 조선학자들 역시 ‘아세아적 생산양식’이라는 ‘언어’를 통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경제 및 문화사에 접근하고 있었다. 이 문제는 경성제대의 일 본인 교수 및 민족주의계열의 지식인 등 다양한 이념과 연구방법이 충돌하는 장이었다.²⁴⁾

조선의 신문학을 위한 배경으로서 ‘아세아적 생산양식’의 문제에 관해 자기 나름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했을 임화는 자신도 이 문제에 마주선다.²⁵⁾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근대사회의-인용자) 제 조건이 이조 봉건사회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성숙, 발전치 못한 것은 불행히 조선근대사의 기본적인 특징이 되었었다. 이 점은 모든 연구자의 일치된 결론이었다.”²⁶⁾ 라는 진술을 토대로 임화의 의견을 다소 평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²⁷⁾ 그러나 이는 본격적인 논지 전개 이전에 일종의 전제를 확인하는 언급일 뿐이며, 맑스주의자들의 공통된 언어였던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 주목할 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임화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 앞서 이승녕이 일갈한 바와 같은, ‘참고문헌’과 ‘고증’이라

24)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및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5) ‘아세아적 생산양식’과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를 연관지어 살펴본 그간의 대표적인 논의로는 김재용, 「임화의 이식문화론과 조선적 특수성 인식의 명암」, 문학과사상연구회,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및 하정일, 「이식·근대·탈식민 - 임화의 이식문화사론에 대하여」, 『탈식민의 미학』, 소명, 2008.

26) 임화, 「개설 신문학사(6)」, 『조선일보』 1939. 9. 14; 『문학사』, 22면(22~27면 참조).

27) 한 연구자는, “임화는 「신문학사」에서 이(아세아적 생산양식의 문제-인용자)를 언급하면서 각주의 형태로 이러한 이해의 원천을 밝혀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백남운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와는 다른 입장에서 있었던 이철원, 김광진, 김태준, 이우진, 早川二郎, 森谷克己, 그리고 경성제대의 四方博까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차이에 대해 임화가 명확히 의식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진영, 「임화 신문학사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75면, 주 91).

는 실증주의적이고 근대적인 학문방법론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임화는 이미 형성된 학술 장에 개입을 하며, 백운은, 이청원, 早川二郎 奥平武彦, 四方博 등 무수한 논자들의 견해를 인용하고 그 사이를 횡단하며 복잡하게 자신의 논지를 전개한다. 임화는 그 과정을 무수한 각주로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아 조선후기 한적(漢籍)이라는 자료에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고증하고 그것을 의미화한다. 「개설 신문학사」의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임화의 학술적 글쓰기는 학술 장에 개입한 근대 학술적 글쓰기의 전형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글쓰기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3 근대화의 제1과정」과 「4 근대화의 제2과정」에 주목하기로 한다.

②

신문학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각주가 달려 있는 부분이 「제2장 신문학의 태반」의 「제1절 물질적 배경」, 그 중에서도 근대화의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무수한 각주들의 대부분은, 조선과 서구의 직간접적인 교섭을 기록하고 있는 전통시대의 순한문 문헌의 출전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면 임화는 어떻게 이 자료들에 접근을 할 수 있었을까? 임화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지를 만들어 학술 장에 개입하게 해 준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학술 장에 제출된 선행 참고문헌이었다. 임화에게 조선에서의 서구와의 교섭사를 설명해주고, 그것을 기록한 자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친절하게 그 원문까지 토를 달아서 제공한 책은 이능화²⁸⁾의 『조선기독교급외교사』(1929)이다.²⁹⁾

28) 일석 이희승 선생은 이능화를, 훗날한 키와 용모를 닮았고, 서양 음악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동시에 기방 출입도 기꺼우는 풍류객으로 기억하며, “모국어 못지않게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선생 앞에서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일본인 교사들이 기가 죽는” “통쾌한 일”을 회고한다. 이희승,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1977), 선영사, 2001, 50-51면.

29) “한학·영어·프랑스어에 능통”했던 그가 1925년에 저술한 이 책은 애초에는 그 인용자료와 같이 저술 역시 순한문으로 이루어졌으나, 발행인의 요청으로 ‘토’를 단 형태로 발행이 된다. 당시(唐詩)를 인용하면서 글을 시작하는 용례에서 보듯

조선 시대를 살피는 임화의 시각은 이능화가 끌어올린 조선기독교교사의 구도를 따라서 전개된다. 가령, 이석-이수광-이광정-정두원-김육-이승훈으로 이어지는 「3. 근대화의 제1과정」의 계보는 이능화가 만들었던 그것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근대화의 제1과정은 이능화의 책 상편의 제1, 2, 9장과의 관련 속에서 작성된 것이다. 「4. 근대화의 제2과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구인과 조선인의 직접적인 대면을 다루는 이 부분은 이능화의 책, 「제14장 조선영해에 표박양선」과 「제17장 병인양요」, 그리고 「제24장 신미양요」를 참조하면서 작성된다. 임화는 『조선기독교급외교사』를 통해서 『지봉유설』, 『성호사설』, 『열하일기』, 『조선왕조실록』, 『지봉유설』, 『문헌촬요』 등, 이능화에 의해 이미 그 중요성이 공인된 한문문헌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임화가 순환문 전문을 인용한 이수광의 『지봉유설』의 한 절은 이능화 책에 실린 인용문과 끊어 읽은 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또한 이능화의 저서는 기독교 ‘구파(Catholic)’³²⁾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에 “서양문물이 유입”³³⁾되는 과정을 다룬 『조선기독교사』를 본편으로 삼고, 거기에 조선 중기에서 19세기까지 조선과 서양인들이 직접 대면하는 과정을 추적한 『조선외교사』를 덧붙인 것이다.³⁴⁾ 이러한 『조선기독교급외교사』의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글쓰기 방식에 충실하면서, 수록한 방대한 자료의 출전을 각각 밝혀 독자들이 참고하는 데 편의를 돌보았다. 이능화, 『조선기독교급외교사』, 조선기독교창문사, 1929, 예언 2면 및 상편 2면. 책의 발간은 1929년이나 책의 서언은 1925년 크리스마스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집필과 출판 사이에 상거가 있다.

30) 이능화, 앞의 책, 상편 1-8면.

31) 임화, 「개설 신문학사(10)」, 『조선일보』 1939. 9. 19; 『문학사』, 33면 및 이능화, 앞의 책, 하편 67면.

32) 이능화의 용어이다. 위의 책, 하편 204면.

33) 이능화, 앞의 책, 예언 1면.

34) 이능화의 『조선기독교급외교사』는 1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나, 상하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면수를 따로 메기고 있다. 그런데 하편 안에 보면, 제13장까지 서술이 된 후에 ‘부 조선외교사’라는 제목이 붙고 14장이 이어진다(다만, 실제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목차에 나타난다. 위의 책, 목차 16면).

편집체제 자체가 입화의 구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곧, 이능화의 『조선기독교사』 부분은 입화의 「3. 근대화의 제1과정」으로 이어지며 『조선외교사』 부분은 「3. 근대화의 제2과정」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입화의 「개설 신문학사」는 많은 선행 연구업적들이 형성하고 있던 근대적인 학술 장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물론 「제2장 신문학의 대반」을 쓰는 입화의 시각이 단 한 권의 책에 의해 오로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가령 입화는 「4. 근대화의 제2과정」을 쓰는 와중에 이능화의 책을 통해 주된 줄기를 잡은 뒤, 각 부분을 세세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는 이병도가 역주한 『하멜표류기』, 포치야로프 등의 『유물 세계사 교정』, 그리피스스의 『은자의 나라 코레아』를 자신의 시각 아래로 끌어와 맥락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능화의 책에서는 살피지지 못한, 일본을 통한 서구문물의 유입을 다룬 「5. 근대화의 제3과정」을 새로이 설정하여 근대화의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입화는 다양한 선행논문을 끊어 오고, 그것들을 자신의 맥락으로 재구성하면서, 조선 후기사에 접근해 간다. 이것은 비록 자신이 ‘아마튜어’이지만, 학술적인 글쓰기 방식을 통해 문학사 서술의 ‘과학적 보편성’³⁵⁾을 획득하려는 입화의 시도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학문적 방법에 있어서의 과학적 보편성은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 원인은, 입화가 「개설 신문학사」에서 선택한 학문적 ‘방법’과 「개설 신문학사」를 통해 강조하고자 한 ‘목적’ 사이에 ‘균열’이 존재했고, 이것을 넘으려면 어느 정도 논리적 ‘비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비약은 학문적 방법의 보편성과 과학성을 위배할 여지가 다분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조선의 근대화와 관련된 ‘물질적 배

35) 이매뉴얼 윌러스틴, 『지식의 불확실성』, 82면 및 138면 등 곳곳. 입화를 비롯하여 이 시기 학술적 저작물들은 ‘과학적 열정’의 산물이었던 19세기에서 20세기의 (근대) 역사학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경'을 살피는 작업이, '생산양식' 자체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도서가 유입되고 서양인과 직접 만나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

학술 장과의 관련 속에서 「개설 신문학사」를 쓴다는 것은 문학사 쓰기에 학술적인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앞서 말했듯 1930년대 조선학계에서는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논자 나름의 대답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는 임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근대화 과정을 묘사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임화가 쓴 근대화 과정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은 서술 부분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가령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보자.

하멜 이하 처음 제주도에 표착한 효종 4년(1653)부터 여수에서 나가사키로 탈출할 현종 7년(1666)까지가 14년간이요, 잔류한 인원이 조선에서 생애를 마쳤으니 그들이 조선에 남긴 것은 불소하였음을 생각할 수 있다.[주 20: 이병도 씨 역 『하멜표류기』 더욱이 벨테브레와 하멜은 당시 구라과 신흥 상업 자본주의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로 범신통 철학자 스피노자가 생존해 있는 문명국이며 가장 첨예한 신교국이었던 만큼 그들에게서 조선이 얻은 것은 천주교도에게서 얻은 바와 스스로 다른 점도 있으니 생각하면 흥미 있는 일이다. / 좌우간 임란에 들어왔던 세스페데스가 최초의 천주교도라면 벨테브레와 하멜 일행은 조선 땅을 밟은 최초의 신교도라는 것은 기념할 일이다.³⁶⁾

임화는 이병도가 역주한 『하멜표류기』의 내용을 가져오고, 그 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다. 선행 논저를 가져오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부가하는 학술적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서, 임화는 어느 정도의 과잉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임화는 역사적 사실에 실제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해석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근대화 제2과정에서 외국인들의 표류를 “조선 자신으로 하여금 서양 사정을 적극적으로 탐지케”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 부분을 들 수 있다.³⁷⁾ 그러나 ‘적극적

36) 임화, 「개설 신문학사(10)」, 『동아일보』 1939. 9. 20; 『문학사』, 34면.

37) 임화, 앞의 글, 같은 면.

으로 탐지'한 행위의 실체는, 임화 자신이 각주를 달았듯 고종이 신하들에게 양이(洋夷)에 대해 하문한 사실일 따름이다.

이러한 과도한 해석은 근대화 과정 곳곳에서 적지 않게 산견되는데 천주교에 대한 그의 해석에서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천주교와 평등의 문제를 연관시켰던 이능화와 마찬가지로,³⁸⁾ 임화는 천주교가 “봉건 조선에 최초로, 그러면서도 가장 뿌리깊이 내리박힌 근대정신의 대철추”로 “봉건 조선 붕괴의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한다.³⁹⁾ 그러나 그는 동시에 실제로 천주교에 이 정도까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있었다.⁴⁰⁾ 실체가 그렇지 않음을 알면서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임화의 해석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이것은 서구와 동시대적으로, 외부로부터 다양한 자극이 조선 사회에 주어졌음을 묘사하려는 임화 의도의 소산으로 보인다. ‘물질적 배경’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자.

㉠ 미숙하고 불충분하나마 그 정도에 상응한 근대적 생산양식의 맹아를 장(藏)하고 있었으며 (근대적인 생산양식의 맹아는 - 인용자) 이조 말기에 가까워지면서 ㉡ 상기(上記)한 세길을 통한 대외관계로부터 오는 자극과 봉건 자체의 성숙과 아울러 그것은 성장하고 있었다.⁴¹⁾

사실 임화는 그 자신이 「본격소설론」에서 토론했듯, 조선에서는 서구와 같은 완미한 개성이 발현되지 않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⁴²⁾ 그런데 ‘물질적 배경’의 결론 부분에 와서 임화는 ‘미숙하고 불충분하나마 근대적 생산양식의 맹아’가 조선 사회 내부에 존재했다는 점을 긍정하고 있다(㉠). 바깥으로부터 다양한 자극(㉡)이 있었기에 이에 대응하여 조선의 내부에서는 봉건자체가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⁴³⁾

38) 이능화, 앞의 책, 서언 3-4면.

39) 임화, 「개설 신문학사(9)」, 『동아일보』 1939. 9. 19; 『문학사』, 32면.

40) 임화는 다른 부분에서 “천주교가 조선문화와 무슨 내적 교섭이 있었느냐? [...] 이렇다고 지적할 정신 교섭을 발견키 어렵지 않은가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개설 신문학사』, 1939. 10. 6; 『문학사』, 53면).

41) 임화, 「개설 신문학사(13)」, 『조선일보』, 1939. 9. 26; 『문학사』, 43면.

42) 임화,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376-377면.

임화는 ‘아세아적 생산양식’을 언급하면서 조선이 서구와 다른 근대화와정을 거쳤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막바로 조선의 ‘정체성(停滯性)’으로 환원하지는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내부의 가능성을 충분히 긍정하는 임화의 입장은 김태준, 백남운의 ‘아세아적 생산양식’ 해석과 상동성을 갖는다. 일찍이 백남운은 논리적 모순을 무릅쓰면서 ‘아세아적 생산양식’ 개념에 내재한 정체성(停滯性)의 의미를 철저히 배제하고, 아시아적 특수성을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을 따르는 보편성의 특수적 표현으로 파악하고자 한 바 있다.⁴³⁾ 임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서구와 동시대적인 자극들이 조선에 주어졌음을 강조하려 했다. 외부에서의 자극은 조선 내부에서의 대응과 연관된다. 신교와 스피노자가 굳이 언급된 것도 이 때문이다. 동시대적인 자극이 다양하게 주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임화는 다양한 사상과 배경을 가진 서구인들이 조선인과 ‘접촉’을 했는가의 문제에

43) ‘외부로부터의 자극’과 ‘내부에서의 주체적 대응’, 즉 ‘외부’와 ‘내부’의 변증법적인 관계는 「개설 신문학사」를 통괄하는 임화의 핵심적인 논리이다. 이 논리는 1930년대 중반 ‘세계적 보편’과 ‘조선적 특수’ 사이의 긴장을 문제 삼았던 임화의 시각에서 비롯되어, 김태준과의 지적 협력 결과 ‘이식문화론’을 통해 논리화된 후, 「개설 신문학사」 곳곳에서 발견된다. 「제2장 신문학의 태반」의 조선 근대화 과정과 「제3장 신문학의 발흥」의 신소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시각 하에서 씌어진다. ‘외부’와 ‘내부’의 변증법적인 관계, 곧 ‘이식문화론’의 맥락에서 「개설 신문학사」의 「제2장 신문학의 태반」과 「제3장 신문학의 발흥」을 살핀 것은 좋고, 「전형적 임화와 ‘조선’의 발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2-99면 참조.

44)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 156-160면 및 184면. 백남운은 “조선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일지라도 사회구성의 내면적 발전법칙 그 자체는 완전히 세계사적인 것이다. 삼국시대의 노예제사회, 통일신라기 이래의 동양적 봉건사회, 이식자본주의 사회는 급일에 이르기까지 조선역사의 기록적 총 발전과정을 표시하는 보편사적 특징(!)이고, 그 각각은 그 특유의 법칙을 가진다. 여기서 조선사 연구의 법칙성이 가능해지며, 세계사적 방법론 아래에서만 과거의 민족생활 발전사를 내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의 위압적 특수성에 대해 절망을 모르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改造社, 1933, p. 9. 김태준 역시 조선의 중세와 근대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봉건사회의 태내에서 싹튼 근대”를 문제 삼고 있었다. 박희병, 「사상사에서 본 천태산인」, 『천태산인과 동아시아 문학 연구의 지평: 天台山人 誕辰 100周年 記念 學術發表大會 자료집』, 서울대학교 중앙중문학과 민족문화사연구소, 2005, 12-13면.

주목했으며, 그러한 주목이 그가 이능화의 선행 업적에 주목하게 만들었다.⁴⁵⁾

‘동시대적 보편성’의 문제는 「제2절 정신적 준비」에서 일본의 양학에 관련된 논저들을 참조하여 조선의 ‘실학’을 일본의 ‘국학’과 ‘유비’하여 해석하려는 임화의 태도로 이어진다.⁴⁶⁾ 일본에서는 ‘국학’과 그 뒤를 이어 ‘양학’이 있었으며, 이들의 ‘정신적 준비’는 결국 일본의 성공적인 근대화로 이어졌다. 임화는 일본의 ‘국학’과 같은 역할을 조선의 ‘실학’이 담당해주길 바라는 욕망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과도한 일반화와 보편사에의 욕망은 임화의 신소설 분석에서도 나타난다.⁴⁷⁾

경성세대 교수를 비롯한 관방 측 학자들이 ‘아세아적 생산양식’을 통해 조선이 세계적 보편성에서 뒤쳐진 특수한 지방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 임화는 조선에 있어 보편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임화 역시 결국에는 갑오개혁의 실패로 조선의 근대화가 좌절되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최대한의 보편성과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임화 자신도 알고 있는 조선의 근대화 실패라는 역사적 사실을 보편성의 시각에서 다시 해석하고자 하는 이 지점, 곧 조선사에 근대성이라는 ‘내용의 보편성’을 부여하려는 이 지점에서, 학문적 ‘방법의 보편성’을 위배한다. 내용의 보편성을 강조하다보니, 임화는 역사적인 사실에 실제보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논리적인 비약을 범한다. 생산양식의 문제를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처리’하는 방식 또한, 보편성이라는 임화의 ‘서술 의도’와, 현실적으로 임화가 당대 학술 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료’가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 것

45) 사실 반대일 수도 있다. 이미 출간된 이능화의 저서가 정리하고 맥락화한 조선후기의 역사적 사실들을 임화가 보았기 때문에, 임화는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위와 같이 3가지 갈래로 나누어 서술할 것을 기획했을 수도 있다.

46) 일례로 “이 점은 내지(內地) 도쿠가와(德川) 시대의 양학(洋學) 혹은 국학과 그 성격이 비슷하였다. 김만중·신여암(申旅菴) 등의 언문, 국자 연구와 존중은 이 내지(內地)의 국학과 방불한 점이 있다 할 수 있다”(임화, 「개설 신문학사(14)」, 『조선일보』, 1939. 10. 5; 『문학사』, 50면).

47) 박상준, 「임화 신문학사론의 문학사 연구 방법론적 성격에 대한 연구」, 『외국문학연구』 28, 2007, 196-198면.

이다. 「개설 신문학사」의 전반부 글쓰기는 이처럼, 두 개의 보편성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

「개설 신문학사」의 「제2장 신문학의 태반」 부분은 수많은 인용에서 보듯, 당대 학술 장과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다. 임화 역시 다양한 학술적인 논의들을 섭렵하고 절단하여 인용하고 재배치하는 학술적인 글쓰기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조선의 근대화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태도에서는 김태준(혹은 백남운)과 상동성을 보이고, 실제 그것을 논증하는 과정에서는 일찍이 이능화가 의미화했던 한문 전적들을 다시 읽으면서 (다소 과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무수한 각주들을 통해서 남겨 놓았다.

임화는 학술 장에 접근하고 두 개의 보편성 사이에서 진동하는 글쓰기를 수행하였다. 「개설 신문학사」에서 임화가 각주를 통해 이익의 『성호사설』,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리고 이수광의 『지봉유설』을 “必讀의 價値가 있다”고 평하는데,⁴⁸⁾ 이러한 언급은 수많은 학술적 결과물 사이에서 임화가 그 나름의 해석을 수행하고 자신의 입장을 결정한 이후에 가능했던 진술이다.

4. 독자적 학문방법론이라는 의도와 서술의 낙차

— 신소설과 후반부 글쓰기

①

「개설 신문학사」의 후반부 글쓰기는 각주가 줄어든 것을 특징으로 한다. 앞서 살폈듯 여기서는 선행연구를 이용할 때 ‘논지’를 참고하기보다는, 주로 거기서 ‘자료’를 가져온다. 임화는 다양한 자료를 자신의 맥락에서 적극 재해석하는 글쓰기를 보여준다. 우선 이러한 글쓰기의 가장 간단한 형태의 서술을 확인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48) 임화, 「개설 신문학사(9)」, 『조선일보』, 1939. 9. 19; 『문학사』, 30면.

그러면 그 內容에 나아가 보면 그것이 雜歌인만큼 內容도 또한 雜然하(지만-인용자...) 雜歌의 가장 特色이라는 것은 그보다 人生의 享樂에 있는 듯하다. [...] “노세노세 젊어노세 늙고병들면 노나니”라고 그 끝을 맺었다.⁴⁹⁾

우리는 이 노래(『은세계』에 삽입된 민요-인용자)가 “노세노세 젊어노세” 하는 노래가락과 근사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두 노래에 공통된 쾌락사상 혹은 유희사상은 조선 민요의 고유한 색조의 하나로서 우리의 주목을 끌어왔는데 그 쾌락사상의 특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퇴폐적인 데, 즉 절망적인 쾌락 탐구에 있었다.⁵⁰⁾

앞의 언급은 도남 조윤제가 『조선시가가사강』에서 ‘노세노세 젊어노세’라는 잡가의 향락성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 것에서 임화는 ‘노세노세 젊어노세’라는 노래를 통해 조선민요의 퇴폐성과 절망적인 쾌락탐구를 지적하고, 이를 통해 『은세계』에 삽입된 민요 해석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각주가 사라졌다고 해서, 『개설 신문학사』의 후반부 글쓰기가 당대 학술 장과 절연된 것은 아니었다. 임화는 여전히 기존의 학술적 성과물을 자신의 학술적 글쓰기에 적극 끌어온다. 다만 ‘아세아적 생산양식’을 다룬 앞 부분보다는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게다는 말은, 그만큼 기존의 연구성과와의 의견의 낙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가 그만큼 독보적인 입각점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의 신소설 부분을 이해하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는 『世界文藝大辭典』으로 대표되는 서구문학사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청진서관, 1933; 학예사, 1939)이다. 이 두 편의 연구와의 관련 속에서 「개설 신문학사」 후반부, 신소설 부분에 접근하도록 하겠다.

임화의 서구문학에 대한 감각은 카프 해산 이후 평론 곳곳에서 산견되는데,⁵¹⁾ 신문학사 연재를 시작하는 초두에서 임화는 中央公論社에서 펴낸 『世

49)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427-8면.

50) 임화, 「속 신문학사(22)」, 『조선일보』, 1940. 3. 8; 『문학사』, 223면.

51) 마산 요양 이후 임화는 이들에 대한 그 나름의 연구를 진행한다(방민호, 「주체적

界文藝大辭典』을 펼친다.⁵²⁾ 『世界文藝大辭典』의 제7권은 ‘문학사’로 서양문학과 동양문학사를 아울러 세계의 문학사를 집대성하고 있다. 서양의 경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 문학사가 다 포함되는데,⁵³⁾ 대개 수 백년에 걸친 사조사의 변천에 의해 서술되어 있다. 방대한 분량의 ‘세계문학의 역사’ 앞에서 임화는 “단테, 보카치오에서 기산한다면 7세기 6백 년이요, 17세기 고전주의 시대로부터 기산한다면 3세기 2백여 년, 실로 우리 신문학의 30년에 비한다면 장구하고 거창한 시간이다”라고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⁵⁴⁾ 방대하고 자세한 서양문학에 비해, 동양문학사는 중국, 일본, 인도의 경우로 단출하게 씌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이 책에서 중국은 ‘5·4 운동’과 ‘문학혁명’을 기점으로 “現代” 문학으로 나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⁵⁵⁾ 게다가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초기의 문학사가 “문명섭취기-문예혁신기-문예발흥기-문학진전기” 등 네 단계에 의해 순차적으로 근대문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다.⁵⁶⁾

즉 이 문예사전에서 임화가 본 것은, 이미 수백년의 전통을 가진 서구라

인 시각으로의 전회],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97면). 그리고 임화의 글에서도 “이것은 單純히 理論을 爲한 論理가 아니라 實際로 過去에 寫實主義文學의 綿密히 研究한 結果로 到達한 것이다”(임화, 「낭만적 정신의 현실적 구조」,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6면)라는 언급에서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52) 임화, 「개설 신문학사(4)~(5)」, 『조선일보』, 1939. 9. 8~9; 『문학사』, 16면에 있는 주석(원문에서는 주 1, 『문학사』에서는 주 2)을 통해 알 수 있다.

53) 이 책에는 그리스, 로마, 영국, 아일랜드, 아메리카,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등의 문학사가 실려 있다(서구문학사들의 목적은, 『世界文藝大辭典 7』, 中央公論社, 1936, pp. 5-12). 이러한 보편성 혹은 세계문학의 이념은, 피테의 ‘세계문학’ 구상이나 방티겔이 지적한 19세기 서구 문학의 코스모폴리타니즘적 의식과 상당히 유사하다(이에 관해서는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25-32면).

54) 임화, 「개설 신문학사(1)」, 『조선일보』, 1939. 9. 2; 『문학사』, 9-10면.

55) 『世界文藝大辭典 7』, 中央公論社, 1936, pp. 214-220. 중국문학의 ‘현대’는 胡適, 魯迅, 周作人 등의 세대에 이루어진다. 사전 원문에서는 중국이 아니라 ‘支那’로 표기된다.

56) 『世界文藝大辭典 7』, 中央公論社, 1936, pp. 81-92.

는 보편적인 문학과 그 보편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간 중국과 일본이었다. 이러한 ‘사진’을 염두에 둔 상태로 임화의 ‘신문학’ 개념을 살펴보겠다.

신문학이란 새 현실을 새 사상이 견지에서 엄숙하게 순예술적으로 언문일치의 조선어로 쓴, 바꾸어 말하면 내용·형식 함께 서구적 형태를 갖춘 문학이다. / 신문학이란 개념은 그러므로 일체의 구문학과 대립하는 새 시대의 문학을 형용하는 말일뿐더러 형식과 내용상에 질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문학을 의미하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신문학시는 조선에 있어서 서구적 문학의 이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신문학시는 근대 서구적인 의미의 문학의 역사다.⁵⁷⁾

신문학이란 관용설(慣用語)의 어의는 전항(前項)에서 이미 언급하였거니와 그 서구적인 형태의 양식과 내용을 가진 문학은 제래의 동양에는 대체로 없었다고 보아 족하기에 우선 조선에 있어 서구적인 형태의 문학사를 문제 삼지는 데 중점이 있다. 이 말은 곧 서구적인 형태의 문학을 문제 삼지 않고는 조선(일반적으로는 동양)의 근대문학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도 된다. [...] 시조, 가사, 운문소설, 한시, 그타(他)는 현대에 이르도록 전통적 문학으로 생존해 있으나 결코 근대문학은 아니다. 그것들은 오직 현대에서 볼 수 있는 구시대 문학의 약간의 유제(遺制)에 불과하다.⁵⁸⁾

위의 언급에서 보이는 임화의 시각은 『世界文藝大辭典』의 그것과 다르다. 임화가 보는 ‘신문학’이란 철저히 서구적인 것이었으며 동양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단테, 셰익스피어, 몽테뉴, 고골리, 세르반테스 이후의 서구 각국의 문학과 조선의 신문학을 마주세우고 있다.⁵⁹⁾ 임화에게 신문학이란 ‘보편’적인 근대성의 문제였다. 이 점은 앞서 「제2장 신문학의 태반」에서 보편성이 문제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②

「개설 신문학사」 전반부에서 임화는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해 정체성

57) 임화, 「개설 신문학사(3)」, 『조선일보』, 1939. 9. 7; 『문학사』, 15-16면.

58) 임화, 「개설 신문학사(4)」, 『조선일보』, 1939. 9. 8; 『문학사』, 17면.

59) 임화, 「개설 신문학사(3)」, 『조선일보』, 1939. 9. 7; 『문학사』, 16면.

(停滯性)이 아닌 보편성으로 대답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사용한 학술적 방법은 이능화를 다시 읽는 방식이었다. 이제 「개설 신문학사」 후반부에서 임화는 신문학의 근대성을 통해서 보편성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부분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지를 참조하지 않고 단지 자료만을 가져와서 임화 자신이 논리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때 임화는 어떠한 독자적이며 동시에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 자신의 논리를 만들고 있는가. 이때 과학적이고 보편적인 임화의 연구방법론이 바로 「신문학사의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신문학사의 방법」에 접근할 것이다. 임화 문학사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대개 「신문학사의 방법」을 독립적으로 주목했으며, 임화의 문학사적 방법론이 단지 ‘이식인지, 이식이 아닌지’의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다. 그러나 「개설 신문학사」를 논할 때, 그 중심에 놓인 이인직·이해조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김윤식 교수의 지적을 경청한다면,⁶⁰⁾ 「신문학사」의 방법 또한 기존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곧 「3. 환경」과 「4. 전통」의 문제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 대상」, 「2. 토대」, 「5. 양식」, 「6. 정신」에도 주목하며,⁶¹⁾ 「신문학사의 방법」을 추상적이고 고립된 학문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설 신문학사」 본편과의 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임화의 논지를 따라가도록 하겠다. 임화가 아무리 스피노자를 강조했다더라도, 조선은 결국 근대화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임화는 동시대적인 자극이 조선에 주어졌음을 부단히 강조했으나 결국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임화가 갑오개혁을 “근세 초기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과시키게 한 르네상스적 운동의 한 형태”로 그 의미를 강조하지만,⁶²⁾ 조선에서의 개화 정신은 불철저했

60) 김윤식, 『임화 연구』, 문학사상사, 1989, 519면.

61) 임화 또한 ‘양식’에 관하여 “문학사적 연구는 실상 이 연구가 결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임화, 「신문학사의 방법」,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837면).

62) 임화, 「개설 신문학사(16)」, 『조선일보』, 1939. 10. 7; 『문학사』, 55면.

고 타협적이었기 때문에⁶³⁾ 그 개혁은 역사적으로 실패하였고 서구문화의 이식해체의 과정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조선에서는 신구가 절충적인 ‘과도기’의 문화가 발생하게 된다.⁶⁴⁾ 이것이 「제2장 신문학의 태반」의 결론이었다. “구(舊) 용기에 신주(新酒)를 담은 성질의 문학”⁶⁵⁾인 신소설은 과도기 문학의 한 예이다.

그런데 「신문학사의 방법」을 염두에 둔다면, 과도기의 시대정신이 ‘타협적’이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 까닭은, 「신문학사의 방법」의 내적 원리와 연관된다. 입화는 문학사의 과제를 ‘양식’의 해명이라고 천명하는데, 그 이유는 ‘양식’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해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⁶⁾ 「신문학사의 방법」에 따르면, ‘양식의 탐구 → 시대정신의 해명’의 순서로 사유가 전개되고 심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틀로 과도기를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과도기의 신소설 ‘양식’을 분석·해명하고 이를 통해 ‘시대정신’을 해명하기도 전에, 「제2장 신문학의 태반」의 「제1절 물질적 배경」과 「제2절 정신적 준비」의 결론을 통해 입화는 과도기의 시대정신이

63) “그러나 갑오 이후 근대에 우리 문화가 조선으로 회귀한 데에서보다 더 많이 세계를 향한 전개과정에 영향받고 전혀 모방문화, 이식문화를 만드는 데 그쳤음은 무슨 까닭인가? [...] 도대체 자기애의 철저한 회귀, 심원한 반성, 깊은 잠잠 없이, 바꿔 말하면 자주정신의 진정한 실현을 보지 못하고 개화의 마당으로 창황히 달려나간 데서 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이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 문화 전통이나 유산이 저질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근대문화의 성립에 있어 그것으로 새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조하고 변형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주정신이 미약하고 철저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때문에 신문학의 형성자들은 구문화를 변형하여 새 문화 형성에 사용하는 대신 왕왕 그것과 타협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입화, 「개설 신문학사(17)」, 『조선일보』 1939. 10. 10; 『문학사』, 56-58면.

64) 입화, 「신문학사(1)~(3)」, 『조선일보』 1939. 12. 5-8; 『문학사』, 132-139면.

65) 입화, 「신문학사(2)」, 『조선일보』 1939. 12. 7; 『문학사』, 136면.

66) “정신은 비평에 있어서와 같이 문학사의 최후의 목적이고 도달점이다. 양식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정신의 역사를 발견함으로써 문학사는 정신문화사의 한 분과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다.” 입화, 「조선문학연구의 일과제(6)」, 『조선일보』, 1940. 1. 20. 입화에게 있어 ‘양식’에 관해서는 임규찬, 「입화 「신문학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임규찬·한진일 편, 『입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458-460면 참조.

‘타협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대정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신소설의 ‘양식’을 해명하는 것은 반복적이며, 다시금 같은 결론을 반복한다면 큰 의미가 없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화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소설의 양식 탐구로 나아간다. 임화의 이인직 작품 분석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주지 하듯, 임화는 각 작품의 발표 시기를 오인하고 있었는데,⁶⁷⁾ 사실 ‘오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화가, 자신이 ‘오인’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문학사를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화는 『치악산』-『귀의성』-『은세계』-『혈의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는 다름 아니라, 애초에 구소설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지 못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구소설 양식의 유제’⁶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신소설이 점차 그 유제를 하나씩 해소하고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치악산』이 단지 신·구소설의 절충적인 모습이었다면, 『귀의성』은 좀 더 근대소설에 가깝고, 나아가 ‘신소설의 최고봉’ 『은세계』는 구소설의 유제 ①과 ②에서 해방된 “최초의 작품”이며 객관소설로서의 품모를 완전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치악산』에서 『은세계』에 이르는 도정은 절충적인 과도기의 양식인 신소설이 근대소설의 양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그에 따라 타협적인 시대 정신에서 출발한 조선의 신문학은, 타협적이라는 애초의 태생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따라 점차 완전한 ‘근대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⁶⁹⁾

67) 김하명, 「新小説과 血의淚와 李人植」, 『문학』 1950. 4. 임화는 『치악산』-『은세계』-『혈의누』-『귀의성』 순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임화, 「속 신문학사」, 1940. 2. 15; 『문학사』, 182면). 실제 발표시기는 『혈의누』(1906), 『귀의성』(1906-7), 『치악산』(1908), 『은세계』(1908)이다.

68) 임화가 생각한 신소설 속 ‘구소설’의 유제(遺制)란 ① 선악인의 유행화, ② 권선징악의 구도, ③ 가정에서 모순이 격발하는 것 등 세 가지였다. 임화, 「속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 2. 8; 『문학사』, 175-177면.

69) 이인직 소설 분석의 전개와 서술 원리에 대해서는 즐고, 「전형기 임화와 ‘조선’의 발견」, 87-91면. 물론 신소설의 최고봉인 『은세계』조차 유제 ③은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임화가 보기에 유제 ③은 ‘개화소년의 실성(失成)’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모든 신소설의 근본적 한계에 해당된다(임화, 「속 신문학사」, 『조선일보』, 1940. 2. 8; 『문학사』, 176면). 이러한 한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유제 ①,

그러나 『은세계』의 성취는 이후로 이어지지 못하며, 이후 “신소설은 결국 최초의 작가요 그 양식의 발명자인 이인직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⁷⁰⁾ 이인직이 근대소설의 수준에 닿았지만 이해조는 시정소설을 창작하는 데 그치며 최찬식에 와서는 “흥미본위로 통속화”하여, 결국 ‘신소설’은 퇴조하게 되며, 육당과 춘원 시대의 ‘이식’을 거쳐서야 신문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화의 시도는 나름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이미 토대와 정신 모두 ‘절충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의 신문화가 근대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신소설’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비록 후대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입화는 이인직의 『은세계』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처럼 역사적인 실패를 알면서도, 그 안에서 보편성에 대한 최대한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입화의 작업이었다.

③

마지막으로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와 입화의 「개설 신문학사」를 마주 세워보려고 한다. 입화의 「개설 신문학사」 자체가 김태준이 자신의 『조선소설사』에서 제대로 논구하지 못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입화는 김태준이 스케치하는 정도에 그친 조선문학의 근대성 문제를 정면에서 살피고 있다. 이때 입화에게 서구적인(보편적인) 근대적 성격을 가진 신문학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며, 그의 신문학사 서술을 지탱하는 주요한 틀이다. 그런데 근대문학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김태준의 ‘근대문학’관과는 사뭇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김태준은 『조선소설사』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한다.

朝鮮에는 小說이 없었다고! 웨? 朝鮮에는 아무것도 人情世態를 描寫한 著作이 없었으므로! 나는 이에 對答코저 합니다. 정말 己未運動前後로 文學革命이 일

②를 해소한 『은세계』에서 입화는 ‘신소설’ 내부에서 발아한 근대정신의 최고치를 보고, 적극 긍정한다.

70) 입화, 「속 신문학사(1)」, 『조선일보』 1940. 2. 2; 『문학사』, 166면.

기전까지는 룡-씨의定義한 ㉠ 노-벨은 한券도 없었으므로써입니다. 그러나 많은 稗說·諧謔·野談·隨筆도있고 所謂 로맨스와 스토리(Story)와 픽션(Fiction)은 내가 이에 例證치아니하야도 많이存在하였고 또存在하는 것을 알으실것이다. 다시말하면 ㉡ 예전사람들의 意味하는小説은 헤일수없이 많다.⁷¹⁾

김태준은 20세기 이전 조선에서는 서구적인 근대 소설(novel)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증한다(㉠). 동시에 김태준은 서구적인 의미의 소설(novel)과 조선 전통의 소설(小説)을 구분하며(㉡), 소설(小説)의 개념을 통해 그 자신의 조선소설사를 집필한다.⁷²⁾ 흥미로운 것은 그의 소설사에서 영정조 시대의 소설인 『춘향전』, 『장화홍련전』, 연암의 소설 등은 ‘근대소설’로 다루어진다 는 점이다.

그러나 임화는 이 소설들을 “구소설”이라고 칭할 뿐이며,⁷³⁾ ‘이조 언문문학’은 “새 정신을 담은 낡은 용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그것의 최대치였다. 근대문학이 되려면 조선의 ‘구소설’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는 것이 임화의 생각이다.⁷⁴⁾ 조선의 고소설과 근대소설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임화는 김태준과 갈라진다.

그런데 서구의 근대소설(novel)에 대한 임화의 확고한 관념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의 신문학사 서술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말했듯 임화는 이인직 신소설을 통해서 신소설이 근대소설로 전화할 가능성을 가다듬었다. 이때 「1. 대상」, 「5. 양식」, 「6. 정신」 등의 방법론과 서구 근대소설이라는 이념적인 전범이 그의 신문학사 서술을 굳게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분석하는 임화의 시각을 따라가 보면 단지 서구 근대소설로는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발견과 그에 대한 임화의 의미 부여가 두드러지고 있어, 오히려 주목을 요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신소설 최고의 성취인 『은세계』를 보자. 임화가 그의 맥락에서 이 소설에 주목한 것은 앞서 보았듯 이 소설이 구소설 양식의 유

71) 金台俊, 「增補 朝鮮小説史」, 學藝社, 1939, 13면.

72)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징」, 66-68면 참조.

73) 임화, 「개설 신문학사(14)」, 『조선일보』 1939. 10. 5; 『문학사』, 49면.

74) 임화, 「신문학사(3)」, 『조선일보』 1939. 12. 8; 『문학사』, 137-8면.

제를 철폐하고 완전히 근대소설의 면모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세계』의 근대성을 말하는 동시에 입화는 『은세계』에 관한 문학사 서술의 반 이상을 ‘민요’에 할애하고 있다.⁷⁵⁾ 이미 적지 않은 논자들이 ‘리얼리즘적 성취’의 측면이나 ‘근대 이전 단계 문학 양식(판소리, 설화, 민요)’과의 연속성 문제에서 『은세계』의 ‘민요’ 부분에 주목한 바 있다.⁷⁶⁾ 입화 역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은세계』에 삽입된 민요들에 주목하고 고평한다. 그런데 입화가 ‘민요’에 주목할 때, 그 판단 준거를 다름 아닌 『춘향전』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 노래 속에는 최병도의 성격도 드러나고 감영의 치죄(致罪)가 허무함도 드러나며 그의 옥중 생활과 지방 장관의 학정에 대한 적개심에 찬 풍자가 들어있는 것은 ㉡ 마치 『춘향전』에 “금 술동이 맞진 술은 일친 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의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즐거운 소리 드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 높도다”(金樽美酒千人血 玉般佳肴萬姓膏 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란 시나 방불하나 특히 흥미있는 것은 끝의 일절이다.⁷⁷⁾

입화는 ‘민요’에 나타난 현실 반영과 비판의식을 고평하는 데(㉠), 그것은 『춘향전』에서 삽입한시가 담당한 역할과 같은 양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입화가 그 삽입 한시에 주목하는 것은 현실반영이라는 리얼리즘적 면모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 외에도 그는 실제 『은세계』를 분석하면서 조선의 전통 시가양식인 ‘민요’에 적지 않은 분량을 부여하고 있고 그것을 고평한다. 그런데 입화가 ‘민요’에 주목을 하게 되자, 그는 서구의 근대소설을 전거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춘향전』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⁷⁸⁾ 이 지점에서 입화는 자신이 평소

75) 『은세계』에 대한 문학사 서술은 「속 신문학사」 17회(1940. 2. 27)부터 35회(1940. 4. 13)까지이며, 이중 민요에 관한 언급은 17회에서 26회(3. 27)까지 이어진다. 총 19회에 걸친 『은세계』에 대한 언급 중에서 민요의 인용과 이에 대한 해설에 10회 분량이 할애 된 것이다.

76) 최원식, 「은세계 연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63-64면. 김종철, 「『은세계』의 성립과정」, 『한국학보』, 14권 2호, 1988, 115-146면; 이상경, 「『은세계』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5, 1994, 68-89면 참조.

77) 입화, 「속 신문학사(22)」, 『조선일보』, 1940. 3. 8; 『문학사』, 223면.

‘서구 근대문학’을 놓던 ‘전범(典範)’의 자리에, 『춘향전』을 놓게 된다. 이때 전범이 된 『춘향전』은 임화가 그토록 ‘해탈’하고자 했던 ‘구소설의 유제’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임화는 『은세계』에서 서구적인 근대소설(novel)의 면모를 발견하고자 했고, 실제로 발견했다. 그러나 그 외중에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신소설의 “최고봉”이라 평가한 ‘제3의 자’인 『은세계』는 ‘민요’의 삽입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작품은 ‘서구리얼리즘’과 온갖 ‘조선적인 것’들이 ‘다성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결국 ‘성격과 환경의 조화’라는 근대소설의 시각만으로는 온당한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것이 『은세계』였고, 그렇기에 임화는 『은세계』의 ‘민요’부분을 해명할 때 서구소설이 아닌 『춘향전』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임화에게 「2. 작가와 작품의 연구」는 선행연구를 인용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전반부인 「제2장 신문학의 태반」에서 그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자신의 맥락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했다면, 후반부인 「2. 작가와 작품의 연구」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기 맥락에 맞추어 배치하고 논의함으로 선행연구와 차별화되는 자신의 논리를 전면화하는 지점이었다. 여기서 그는 앞부분에서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김태준의 선행연구와 대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신의 논의의 맥락을 만들어, 자기 나름으로 ‘신소설’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용된 연구방법론이 바로 「신문학사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그리고 전체적인 연구의 진행이 정합적으로 맞아들어 간 것은 아니었다. 임화는 ‘보편성’의 문제를 해명하는 의도에서 ‘신소설’을 해석하고 신문학사를 쓰려했지만, 그가 실제로 발견한 것은 ‘보편성’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다양한 ‘조선적인 것’들이었다. 그리고 임화

78) 김태준은 『춘향전』이 산출되는 전제로서, 조선소설과 중국소설뿐 아니라 정철의 권주가,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 황계타령등 조선의 12가사, 그리고 조선의 장단가를 집성한 『청구영언』, 『해동가요』 등 시가에 대한 섭렵 또한 강조한다(天台山人, 「春香傳의 現代의 解釋(完)」, 『동아일보』, 1935. 1. 10). 시가 섭렵에 대한 강조는 『춘향전』 곳곳에 인용되는 한시와 민요의 문제에 대한 김태준의 관심에 닿아 있다.

가 자신이 수립한 「신문학사의 방법」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면모를 마주하게 된다. 임화가 제기했던 구도와 같이 ‘전통’과 ‘환경’이 만날 때 생성되는 ‘제3의 자’로서의 신소설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임화 신문학사에, “작가의 의도를 반하여” 생긴 “신성한 잉여물”⁷⁹⁾을 남겼다.

5. 연재와 동시에 집필된 문학사

— ‘학술적 글쓰기’라는 새로운 글쓰기의 문제

①

임화의 글쓰기는 「제2절 정신적 준비」의 「3. 신문화의 인식과 발전」에서부터 그 성격이 달라진다. 즉 선행연구논저의 참고빈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자료의 인용이 주를 이룬다. 그나마 유학생 파견과 조선에서의 학교성립을 다룬 「A. 신교육의 발흥과 그 공헌」 부분에서는 교육사에 관한 학술서의 인용이 보이지만, 이후로 선행연구 인용은 거의 사라진다. 「B.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과 「C. 성서번역과 언문운동」에서부터는 임화의 목소리가 전면화된다. 이제 임화는 타 학인들이 이미 일가의 성취를 이루고 있던 영역이 아닌,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논지를 통해 항목을 재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주가 줄어드는 것에 비례하여, 해당 부분의 분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처음으로 각주가 사라지기 시작한 「B. 저널리즘의 발생과 성장」에서부터 서술의 절대량은 증가한다. 「C. 성서번역과 언문운동」에 관한 다음 절 또한 마찬가지이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선행연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야했던 「제1절 물질적 배경」 비해서, 임화 자신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2절 정신적 준비」는 체제 상 동등한 위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분량이 3배를 웃돈다. 임화가 선행연구로부터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혹은 자신의 논리에 의해 ‘자료’를 재배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면 클수록, 서술 분량은 비례하여 늘어나는

79) 임화, 「의도와 작품의 낙차와 비평」, 『문학의 논리』, 학예사, 1940, 712면.

셈이다.

서술 분량이 늘어나는 경향은 실제 작품 분석에 들어가면서 더욱 가속화된다. 임화는 1939년 11월 25일 「제2절 정신적 준비」를 완성함으로써 「제2장 신문학의 태반」을 완성하게 된다. 그 날 연재분 끝에 임화는 “序篇 終”이라고 적는다.⁸⁰⁾ 그리고 서편(序篇)에 이어 본편인 ‘과도기의 문학’에 해당하는 작품분석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인직과 이해조 부분만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분량이 남아 있다. 「제2장 신문학의 태반」만큼 여러 단계의 하위 항목을 거느리는 것도 아니면서, 「제3장 신문학의 태생」은 「제2장」에 비해 2배의 분량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나타나는 것이 분량의 불균형이다. 「제2절 정신적 준비」의 하위 항목인 「1. 금압 하의 실학」과 「2. 자주의 정신과 개화사상」, 그리고 「3.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 사이에는 심한 분량 차가 있다. 「3. 신문화의 이식과 발전」이 앞의 두 항목보다 7배 가까이 길어졌고, 그 아래에 다시 세 개의 하위 항목을 거느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장 신문학의 태생」에 가서는 이런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 「제2절 정치소설과 번역 문학」과 「제3절 신시의 선구로서의 창가」는 각 작품의 제목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분석만으로 가볍게 넘어가는 데 반해, 「제4절 신소설의 출현과 유행」의 「2. 작가와 작품의 연구」, 그 아래의 「A. 이인직과 그의 작품」과 「B. 이해조와 그의 작품」은 작품 하나 하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져서 방대한 분량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체제 역시 그다지 일관되지 않다. 하나의 장(章)에 몇 단계의 하위 항목을 설정하는가의 문제도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다. 각주를 많이 달면서 선행문헌의 논지를 인용한 부분의 체제는 상당히 단순한데, 선행문헌과 무관하게 임화가 자신의 힘으로 자료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하위항목도 복잡다단하고 분량이 훨씬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임화 신문학사와 마찬가지로 우선 신문에 연재되었다가 이후에 단행본으로 발간된 『조선소설사』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⁸¹⁾ 그 불균형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80) 임화, 「개설 신문학사(43)」, 『조선일보』 1939. 11. 25.

81) 『중보 조선소설사』는 총 7편으로 구성되며, 각 편은 그 아래 3-8개의 장을 거느

이러한 체제와 분량의 불균형은 미리 모든 내용을 계획하고 집필하지 않고, 연재를 이미 시작하고 동시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균형으로 볼 수 있다. 임화는 애초에 연재를 시작하면서 목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구상은 있었겠지만, 구체적인 목차는 없다보니 체제의 불균형이 생기게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자료수득 문제와 관련된다. 실제로 신소설을 미처 갈무리하지 못하고 신문학사 연재가 중단될 즈음에 임화가 구하고 있던 자료는, 신소설의 시대 혹은 바로 그 다음 시대에 놓이는 자료들이었다.⁸²⁾ 임화는 집필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모두 구한 상태에서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만 가진 상태에서 집필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구하고 다시 해당 부분을 쓰면서 문학사를 진행시켰다. 이러한 급박함 속에서 씌어졌기에 나타나는 분량의 불균형인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임화 신문학사는 두 가지 학술적 글쓰기 방식이 같이 나타난다. 다른 선행 연구를 주로 참고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전반부의 글쓰기와, 자신이 직접 1차 자료를 해석하고 배치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는 후반부의 글쓰기가 그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가 애초부터 엄밀히 구분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임화는 이 두 가지의 중간형태의 글쓰기(선행연구 참고와 자료 해석이 두루 갖추어진 곧 적당한 길이의 글쓰기 형태)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각각의 극단적인 형태만이 그의 문학사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임화가 학술적인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형태의 글쓰기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각각의 자세함의 정도나 서술 분량의 차이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항목 중에서도 가장 낮은 층위에 있는 「A. 이인직과 그의 작품」과 「B. 이해조와 그의 작품」이 가장 상위 항목인

리고 있고, 그 아래 다시 절을 거느린다. 그러나 각 장은 10~20면 정도의 분량으로 전체로 봐서 문고판으로 280면에 달한다. 『조선시가사강』을 생각해도 임화 정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82) 임화가 원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학지광」, 「조선지광」, 「개벽」, 「청춘」, 「소년」, 「共濟」, 「신사회」, 「눈물」(상, 하 초판), 「아이들보이」(임화, 『新文學史 資料』, 『인문평론』, 1941. 4, 42면).

「제1장 서론」의 10배 분량을 가지는 불균형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이는 임화가 “말하러는 것”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글쓰기 방식의 차이에 익숙하지 않아서 하나의 방식이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임화의 신문학시는 두 가지 형식의 학술적 글쓰기가 나타나며, 연재와 동시에 끊임없이 그 체제를 허물어 가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2

그렇다면 애초에 문학사를 쓰면서 연재하기 시작할 때에는 어느 정도 구상이 되어 있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신문학사의 방법」은 어느 정도 암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신문학사의 방법」은 임화 문학사의 연구방법론으로 ‘총괄적인 지위’를 가진다.⁸³⁾ 그러나 이 방법이 연재 시작 때에 고지된 것이 아니다. 1939년 11월 25일 임화는 신문학을 논하는 배경이 되는 ‘序篇’을 모두 연재하고 잠깐 연재를 멈추고, 이어서 정치소설과 창가에 관한 연재를 마친 뒤 약 두 달간 휴재한다. 바로 이 두 번째 쉼의 기간에 「신문학사의 방법」은 「조선문학연구의 일과제」라는 이름으로 발표된다.⁸⁴⁾ 그리고 이 글이 발표된지 약 1달 후인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신소설 부분에 대한 연재가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신문학사의 방법」 역시 문학사 연재와 동시에 구상되고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승엽과 임규찬의 논고에 힘입어, 우리는 이미 「복고현상의 재흥」(1937)에서부터 임화가 김태준과 거의 비슷한 목소리로, 투쟁으로서의 긍정적인 ‘이식’ 곧 「3. 환경」 항목의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을 알고 있다.⁸⁵⁾ 이후 임화는 「본격소설론」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이식(성)’

83) 박진영, 「임화의 문학사론과 신문학사 서술」, 문학과사상연구회,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112~127면.

84) 임화, 「조선문학연구의 일과제」, 『동아일보』 1940. 1. 13~20; 『문학의 논리』 수록 시에 「신문학사의 방법」으로 개제(改題)된다.

85) 신승엽, 「김태준과 임화」, 『크리티카 2』, 사피엔스21, 2005, 133~139면, 임규찬, 「임화 문학사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122~125면.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변

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문학사의 방법」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며, 나머지 항목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방법론이 어느 정도 구상으로는 존재했겠지만, 「개설 신문학사」의 본문 연재와 관련해서 나머지 항목의 성립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입화는 신문학사 본문의 「제1장 서론」에서 문학사의 「1. 대상」을 정하고 「제2장 신문학의 태반」에서 신문학을 예비했던 「2. 토대」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10월 10일 연재분에 와서 입화는 새 문화 건설에 도움이 되는 전통과 그렇지 못한 전통을 구별하기 시작한다.⁸⁶⁾ 이 두 전통이 「신문학사의 방법」의 「4. 전통」 항목 하의 ‘전통’과 ‘유물’로 각각 연결될 수 있다.⁸⁷⁾ 여기에 「5. 양식」과 「6. 정신」의 문제를 덧붙일 경우 「신문학사의 방법」은 완성이 된다.⁸⁸⁾

중법적인 관계는 이후 1930년대 중후반부터 입화의 비평에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면서 등장한다.

- 86)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주목해 둘 점 하나는 이러한 일방적인 신문화의 이식과 모방에서도 고유문화는 전통이 되어 새 문화 형성에 무형(無形)으로 작용함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있어 전통은 새 문화의 순수한 수입과 건설을 저해하였으면 할지언정 그것을 배양하고 그것이 창조될 토양이 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 문화 전통이나 유산이 저질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근대문화 성립에 있어 그것으로 새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조하고 변형해 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주정신이 미약하고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다”(입화, 「개설 신문학사(17)」, 「조선일보」 1939. 10. 10; 『문학사』, 57면).
- 87) 다만 「개설 신문학사」 연재 당시에는 ‘전통’과 ‘유물’이라는 개념을 아직까지 구사하고 있지 못하고 둘 다 ‘전통’으로 통칭한다. 문학사를 연재하면서 입화는 ‘전통’을, 새 문화 건설에 도움이 되는 전통과 그렇지 못한 전통으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게 되었고, 「신문학사의 방법」에서 그것을 개념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 88) 이러한 생각은 신두원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실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이식문학사론만 하더라도 일단 「신문학사의 방법」에 그 강령적인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개설 신문학사」에서 풍부하게 구체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어도 1937년의 「복고현상의 재흥-휴머니즘 논의의 주목할 일 추향」(『동아일보』, 1937. 7)에서부터 문학사나 문화사와 관련된 입화의 글에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이론·내용도 조금씩 변화·발전해간다. 그런 만큼 이식문학사론의 전모를 파악하려면 이 무렵 입화 비평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신두원, 「변증법적 사유와 실천의 한 절정」, 『민족문학사연구』 38, 2008, 24면).

〈표 2〉 「신문학사의 방법」 완성 과정과 「개설 신문학사」의 연재

1937.		1939. 「개설 신문학사」 연재	1940.		속재	
「복고현상의 재흥」	⇒	「제1장」	「제2장」 ~ 「제3장」의 「제3절」 연재	⇒ 휴재	⇒ 「신문학사의 방법」	⇒ 「제3장」의 「제4절」 연재 및 중단
「3. 환경」	「본격소설론」, 학예사	「1. 대상」	「2. 토대」 + 「4. 전통」	「5. 양식」, 「6. 정신」	완성 및 연재	

임화는 아이디어 상태의 방법론을 염두에 두고, 바로 선행문헌 섭렵과 거의 동시적인 연재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신문학사의 전반부는 신문학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그 배경을 서술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아세아적 생산양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른 선행문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다. 연재와 함께 선행문헌의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방법론을 역사적으로 검증해보며, 임화는 점차 자신의 방법론을 완성해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신문학사의 방법」의 「1. 대상」, 「2. 토대」, 「3. 환경」, 「4. 전통」까지를 완성한 뒤, 그리고 본격적인 작품 분석을 앞두고 생긴 휴재 기간에 그는 「5. 양식」과 「6. 정신」을 덧붙여 자신의 방법론을 완성한다. 그리고 임화는 방법론을 발표하고, 「5. 양식」과 「6. 정신」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는 신소설 연재로 들어간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통해 「신문학사의 방법」 완성과정과 「개설 신문학사」의 연재 사이의 역동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에서 유의할 것은 「복고현상의 재흥」에서 투쟁으로서의 ‘이식’이라는 개념이 정식화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바로 「3.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표는 시각적인 편의 상 최초의 언급을 도기한 것이고, ‘이식’ 개념의 경우에도 「본격소설론」의 단계와 연재 단계를 거치면서 보다 심화되고 풍성한 의미를 획득한 후에 「신문학사의 방법」으로 편입된다.

논의의 대전제로서, 이 시기 임화가 처한 집필환경이 열악했음을 특기하고자한다.⁸⁹⁾ 그런 열악함 속에서 임화는 저널리즘의 영역에서 학술적인 글

89) 신두원, 앞의 글, 23~24면.

쓰기를 시도했는데, 신문연재라는 매체 자체가 이미 그의 문학사 서술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문 연재였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갖추고 해석을 끝낸 뒤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료를 섭렵하고 그 의미를 심문하는 과정과 동시에 연재를 했다. 때로는 다소 급박하기도 했으나 연구 과정을 통해 그 구상을 다소 수정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임화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학술적 글쓰기 사이에서 진동하기도 했다. 신문학사의 전반부 글쓰기와 후반부 글쓰기가 그 성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임화는 점차로 자신의 학술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완성해가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학사 방법론을 제출하는 것에 이른다. 열악함과 급박함, 그리고 내적 논리의 긴장과 균열 사이에서 「신문학사의 방법」은 생성된 것이다.

6. 결론

이 글은 임화에게 아카데미즘이란 혹은 학술(적인 글쓰기)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신문학사에서 보여주는 임화의 글쓰기가 그 이전 비평에서 그가 보여준 글쓰기의 성격과 상당히 달랐기 때문이었다. ‘고증’과 ‘참고문헌’이라는 아카데미즘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론’은 임화를 압박했고, 그 결과 임화는 문학사를 쓰기 위해 임화는 한문을 독해해야했고 조선후기를 다룬 수많은 연구저작들을 섭렵해야 했다. 이를 통해 그는 엄밀한 ‘학’을 추구하고, 그 자신이 말한 공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과학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의 문학사 역시, ‘과학적 열정’의 산물이었던 19세기에서 20세기의 (근대) 역사학과 그 성격이 유사하고 이것은 과학적 보편주의로 연결되는 것이었다.

임화는 신문학사를 통해서, ‘아세아적 생산양식’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고,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한 갑오개혁 이후 타협적인 과도기의 조선 문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던 근대를 향한 문학의 ‘도약’을 문제 삼고 있다. 이것은 ‘아세아적 생산양식’과 조선의 근대화 과정을 둘러싼 당대의 논쟁에 개입하는 것이었고, 「본격소설론」 이후 그를 그토록 고민하게 했던

조선신문학의 근대적 성격에 관한 자신 나름의 해답이었다. 이 과정에서 임화가 보여주는 글쓰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선행연구를 섭렵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만드는 글쓰기였고(3장 ②), 또 하나는 선행연구가 없는 영역에서 자신이 직접 자료를 해석하여 논리화하는 글쓰기였다.(4장 ②) 이때 그의 논리는 「신문학사의 방법」이었다.

이때 신문학사를 쓰는 임화에게는 두 층위의 ‘보편성’이 문제였다. 하나는 조선(사 혹은 문학)을 세계적인 보편과 동시대적인 혹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만드는 문제였으며, 또 하나는 그 학문적인 방법론에 있어서의 과학성과 보편성이었다. 때로는 전자의 보편성(조선이 세계와 동시대적인 자극을 받았다는 것)을 위해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을 무릅쓰다보니 후자의 보편성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고(3장 ③), 때로는 온전히 서구적인 보편의 언어로 조선의 신문학을 논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과학적인 학문방법론에 의도치 않게 끼어들어 균열을 일으키는 ‘봉건조선’의 고소설을 목격하기도 했다(4장 ③).

또한 연재라는 측면에서 신문학사 텍스트 자체를 살펴다보면, 애초에 임화가 자신의 학적인 체계를 세우지 않고 학습과 연재를 동시에 하다보니 생기는 균열의 지점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선행연구를 인용하는 글쓰기와 자신의 시각에서 자료를 다루는 글쓰기 사이에서 진동하는 임화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결과 신문학사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다른 성격의 글쓰기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5장 ①). 또 하나는 연재와 동시에 점차 모습을 갖추어가는 방법론의 모습이었다(5장 ②). “신문에 연재된 학술성과”라는 성격 자체가 신문학사 텍스트 자체에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중학 자퇴 이후로 아카데미즘 바깥에 있던 임화는 이처럼 문학을 통해서는 아카데미즘적인 글쓰기를 시도하는데, 그 결과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문학사는 어떤 영역에서 그 시도는 성공적이었고, 또한 동시에 적지 않은 균열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그만큼 정직하게 학술의 영역으로 접근해가며 진동하는 임화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몇몇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이지만, 식민지 시기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문제는 때로는 겹치며, 때로는 갈라진다. 임화 역시 그의 학술적인 작업을

신문과 잡지라는 저널리즘의 미디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과학적인 학문방법을 통해 아카데미즘으로 나아가려는 임화의 모습에만 치중했는데, 사실 그 반대의 경향도 존재했다. 임화가 경성제대 졸업생들에게 나아간 것뿐 아니라, 경성제대 졸업생들 역시 졸업을 한 후에는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경성제대 출신의 근대적 연구자들과 ‘부랑청년’ 임화가 만나는 그 이름에서, 임화의 「개설 신문학사」의 진면목을 위한 연구는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임규찬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2: 문학사』, 소명, 2009.
- 林和, 『文學의 論理』, 學藝社, 1940.
- 金台俊, 『增補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 李能和, 『朝鮮基督教及外交史』, 朝鮮基督教彰文社, 1929.
- 趙潤濟, 『朝鮮詩歌史綱』, 東光堂書店, 1937.
- 『世界文藝大辭典 7』, 中央公論社, 1936.
- 김명호, 「국문학연구 방법」, 장덕순 외,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김윤식, 『임화 연구』, 문학사상사, 1989.
- _____, 『한국근대문학사상사(1)』, 일지사, 1984.
- 김재용, 「임화의 이식문학과론과 조선적 특수성 인식의 명암」, 문학과사상연구회,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 김종철, 「『은세계』의 성립과정」, 『한국학보』, 14권 2호, 일지사, 1988.
- 류준필, 「형성기 국문학연구의 전개양상과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박상준, 「임화 신문학사론의 문학사 연구 방법론적 성격에 대한 연구」, 『외국문학연구』 28,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7.
-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 박진영, 「임화 신문학사론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_____, 「임화의 문학사론과 신문학사 서술」, 문학과사상연구회, 『임화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4.
- 박희병, 「사상사에서 본 천태산인」, 『천태산인과 동아시아 문학 연구의 지평: 天台山人 誕辰 100周年 記念 學術發表大會 자료집』,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민족문학사연구소, 2005.
-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방민호, 「주체적인 시각으로의 전회」, 『문명의 감각』, 향연, 2003.
- _____, 「임화와 학예사」, 『상허학보』 26, 상허학회, 2009.
- 신두원, 「변증법적 사유와 실천의 한 절정」, 『민족문학사연구』 3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8.
- 신승엽, 「김태준과 임화」, 『크리티카 2』, 사피엔스21, 2005.

- 李秉根, 「李崇寧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학문」, 서울대 국어연구회 편, 『李崇寧 現代國語學的 開拓者』, 태학사, 2008.
- 이상경, 「『은세계』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5, 민족문학사연구소, 1994.
- 이승녕, 『대학가의 파수병』, 민중서림, 1969.
- 이희승,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선영사, 2001.
- 임규찬, 「입화 문학사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입화문학연구회 편, 『입화 문학 연구』, 소명, 2009.
- 줄 고, 「전형기 입화와 ‘조선’의 발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최원식, 「은세계 연구」, 『민족문학의 논리』, 창작과비평사, 1982.
- 하정일, 「이식·근대·탈식민 — 입화의 이식문학사론에 대하여」, 『탈식민의 미학』, 소명, 2008.
- 한기형, 「근대매체와 식민지 민간학술사회의 형성 — 근대문학의 지식사적 위상에 대한 시론」, 『해방 이후, 한국문학 생산의 조건, 그 제도와 매체: 2009년 제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 三原芳秋, 「崔載瑞의 Order」, 『사이間SAI』 4, 국제한국문화학회, 2008.
- Wallerstein, Immanuel, 유희석 역, 『지식의 불확실성』, 창비, 2007.